

石灰混合土의 壓縮強度에 關한 研究 (第一報)

—石灰含量 및 養生이 壓縮強度에 미치는 影響—

Studies on the Compressive Strength in Lime-Soil Mixtures

(Part 1)

—Influence of Lime-Content and Curing on Compressive Strength—

金 成 完* · 姜 义 默* · 趙 成 變*
Sung Wan Kim Yae Mook Kang Sung Sup Cho

Summar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the compression test of 3, 7, 14, and 28 days cured lime soil mixtures. The soil used in this test was clayey soil (sand : 20% silt : 45%, clay : 35%) and the rates of hydrated lime mixture for the dry weight of soil were 4, 8, 12, 19, and 20 percents.

1. The optimum moisture content increases and the maximum dry density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he lime content.
2. The compacted moisture for the maximum strength in lime soil mixture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he lime content and the increase of curing periods.
3. The compressive strength increase of curing periods and its increasing ratio is largest at the 8 percent lime content.
4. The lime content for the maximum strength decreases with increase of curing period and the largest strength shows at the 8 percent lime content when the curing period is over two weeks.
5. It seems to depend on the temperature effect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lime soil mixtures cured in soil shows the lowest value. Accordingly, the effect of curing moisture does not influence to the strength of lime soil mixtures as much as the variation of curing temperature.

I. 緒論

石灰가 흙의 安定處理材料로서 適應性이 認定되어 工事에 適用되기 始作한 것은 200餘年前의 일이며 로오마에서 道路의 基盤層에 石灰處理土로 使用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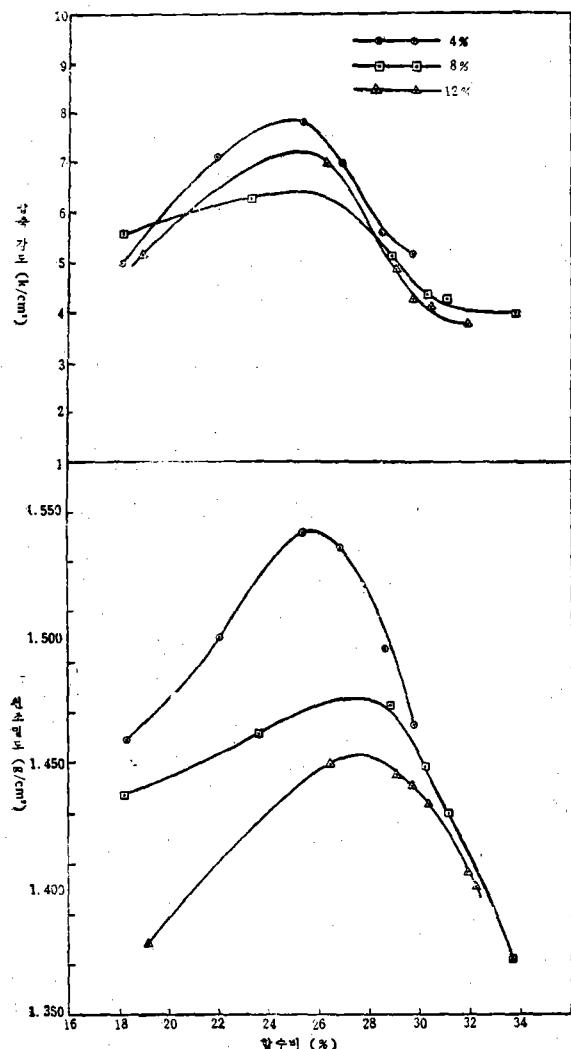
石灰處理土라고 하면 大略 6%의 石灰를 흙에 混合 할 때 結合力을 發揮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포오틀랜드시멘트와 같이 큰 效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큰 結合力을 必要로 하지 않는 마커먼 딕스의 粘結材로서 흙과 石灰를 使用하는 것이 研究되고 있다. 그러나 凍結과 融解가 반복되면 石灰處理土는 破壞되는 缺點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弱點을 補強하기 為하여 添加劑에 對한 研究가 繼續되고 있다.

Marks⁽¹⁾는 石灰混合土에 NaCl 과 같은 添加劑를 使用하여 強度가 增進된다고 하였고 Mateos⁽²⁾는 石灰混合土에 플라이 앤쉬를 添加하여 소일 시멘트와 同等한 強度를 얻었다고 發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添加劑의 使用으로 凍害를 防止하고 높은 強度를 얻어서 經濟的으로 實用化하기 為해서는 앞으로도 研究의 餘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石灰處理土는 흙의 化學的인 變化以外에도 粒子間に 粘結作用을 일으켜서 흙이 安定處理되고 그 適用範圍의 幅이 넓어서 塑性의 粘土로부터 粗粒土에 이르기까지 石灰處理의 效果가 있으며 工事費도 低廉하여 道路나 飛行場의 滑走路等의 鋪裝에 있어서와 같이 路盤과 같은 높은 強度를 必要로 하지 않는 곳에 適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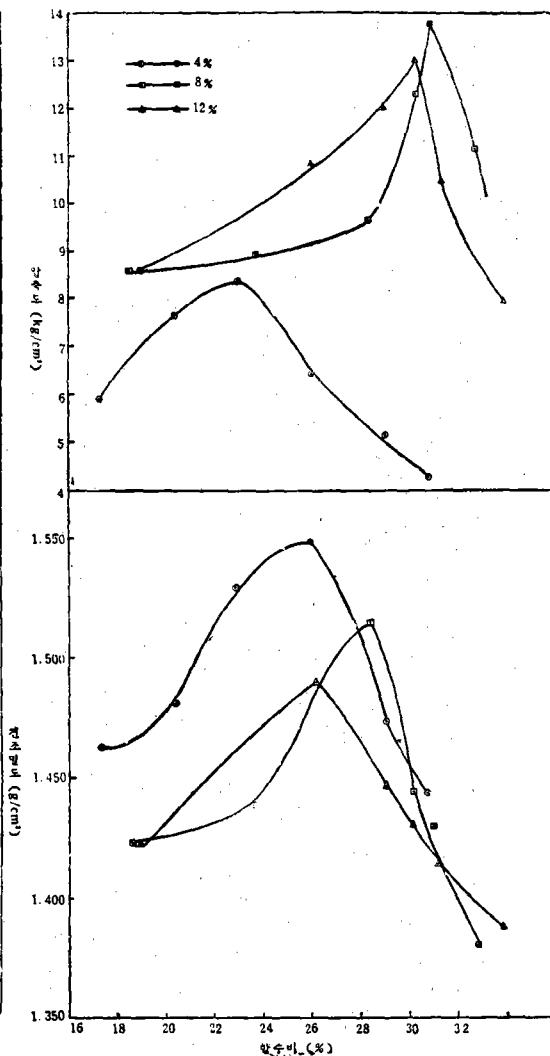
濕潤狀態의 흙에 石灰를 混合하면 物理的인 變化

* 忠南大學校 農科大學

그림 3. 7日間養生한 경우 含水比와 乾燥密度 및
壓縮強度와의 關係

는 空氣中에서 濕氣養生한 壓縮強度와 거의 같은強度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石灰混合量이 8%일 때 養生期間이 7日以上에서 濕氣養生과 거의 같은 強度를 나타내는 含水比를 求하기 為하여 CMC(Compromise moisture content)를 定하고 最大乾燥密度를 나타내는 最適含水比와 比較한 結果 土質에 따라서 그의 差異가 다르나 大體로 5.7% 이내에 속함을 發表한 바 있고 Wang⁽¹²⁾은 最大強度를 나타내는 含水比와 最適含水比는 거의一致하며 그 差는 大部分의 경우 1% 以內에 속한다고 하였다.

흙의 다짐에 있어서는 最大強度를 나타내는 含水比는 最適含水比보다 乾燥側에서 存在하나⁽⁸⁾⁽⁹⁾⁽¹⁰⁾⁽¹⁵⁾⁽¹⁷⁾石灰混合土에서는 水和作用을 維持하기 為하여水分의 供給을 必要로 하므로 흙다짐에서 보다

그림 4. 28日間養生한 경우 含水比와 乾燥密度 및
壓縮強度와의 關係

생자된다. 即 養生期間이 길수록 또 石灰混合量이 많을 수록 最大強度를 나타내는 다짐 含水比는增加하는 傾向이 나타났다.

3. 石灰混合量 및 養生과 強度와의 關係

石灰混合量을 4, 8, 12, 16, 20%로 하고 養生方法을 大氣中養生, 地中養生 그리고 비닐로 密封하여 水中에서 養生한 試片의 一軸壓縮強度試驗을 한結果 表 5와 같다. 石灰混合量에 따른 養生期間과 壓縮強度와의 關係를 圖示하면 그림 5와 같다. 壓縮強度는 一般的으로 空氣中에서 濕氣養生한 것이 가장 큰 값을 나타냈고 地中에서 養生한 것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비닐로 密封하여 水中養生한 強度는 石灰混合量이 4%인 경우를 除外하고

